

## 참고 6.

### 복합충격 발생에 대한 금융기관 복원력 점검

70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무역분쟁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수출 비중<sup>1)</sup>이 높아 리스크 현재화 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이러한 대외 환경 악화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복합적인 충격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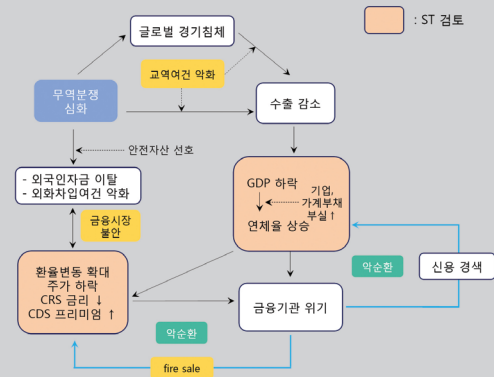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의 대외 여건과 금융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악화될 경우 그 충격이 파급경로를 거쳐 경기둔화 및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SAMP)을 이용하여 점검하였다.

### 리스크 요인의 파급경로

세계교역 여건 악화와 같은 실물부문의 충격과 금융부문의 불안정성 증대가 거의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먼저 무역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 등으로 실물 경제가 둔화되고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가계·기업부채의 부

실이 심화되고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이 저하된다. 또한 확대되는 변동성과 점증하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고 금융기관이 고위험 자산을 축소하는 자산 재조정(rebalancing) 과정에서 자산을 급매(fire sale)하면서 금융·외환시장 불안이 가중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금융시장 불안과 신용위험 증대는 신용경색을 초래하고 금융중개기능을 저해하면서 실물 및 금융 부문에 추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예상 파급경로



###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

금번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GDP 성장률이 무역분쟁으로 인해 기대수준을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020년 GDP 성장률이 기준 시나리오<sup>2)</sup> 대비 3.9%포인트 하락하여 -1.6%까지 낮아지는 시나리오를 상정하였다. 이는 GaR 2.5%<sup>3)</sup>에 해당하는 수

1)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출 비중(19년 1~10월중, 통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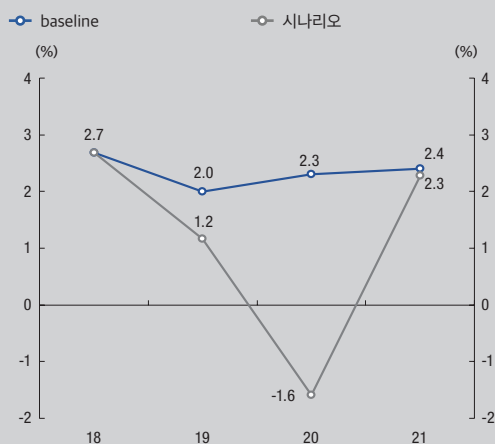
중국	미국	EU	홍콩	일본	총계
24.8	13.4	9.8	5.9	5.2	59.1

2) 2019~21년 GDP성장률을 각각 2.0%, 2.3%, 2.4%로 설정하였다.(한국은행, 19년 11월)

3) GaR(Growth-at-Risk) 2.5%란 현재의 금융여건 하에서 발생 가능한 미래 GDP 성장률 중 하위 2.5% 분위에 해당하는 성장률을 의미하며, 이는 IMF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GaR 5.0%보다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

치로, 글로벌 금융위기(09년) 당시 성장률(0.7%)을 밑도는 수준이다. 주가와 환율은 그동안의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를 반영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변동성<sup>4)</sup>을 상정하였다. 이에 따라 주가는 위기 이전 고점 대비 38.5% 하락, 환율은 33.0% 상승한다고 가정하였다. 테스트 기준시점은 2019년 2/4분기 말이며 시나리오 충격이 2021년 2/4분기까지 지속되는 상황을 설정하였다.

### 실물 충격 시나리오<sup>1)</sup>



주: 1) 연간 국내 GDP 성장률 가정  
자료: 한국은행 추정치

###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 및 대상

상기 시나리오를 토대로 금융기관의 1차 손실과 전염손실을 추정하여 업권별 자본비율을 산출하였다. 금융기관의 1차 손실은 부도율 상승에 따른 신용손실, 금리·주가·환율 등 금융변수 관련 자산가격 변화에 따른 시장손익, 거시·금융 충격에 따른 업권별 고유손익<sup>5)</sup> 등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전염손실은 특정 금융기관 부실에 따른 거래상대방 금융기관의 신용손실과 부실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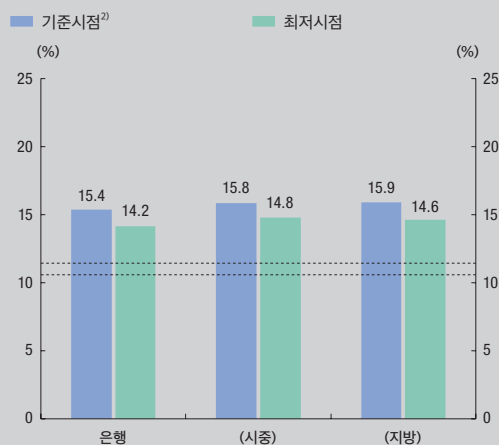
원 자산 급매에 따른 자산처분손실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한편 테스트 대상은 은행 17개, 보험회사 53개, 증권회사 44개, 상호금융조합(이하 '상호금융') 5개, 저축은행 79개,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 8개 등 6개 금융업권의 206개 금융기관이다.

###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금융업권의 자본비율이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GDP 성장률의 하락으로 인해 다소 낮아지겠지만, 규제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의 경우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었다.

### 은행 자본적정성<sup>1)</sup>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주: 1) 규제기준은 10.5%(D-SIB 11.5%)  
2) 기준시점은 2019년 6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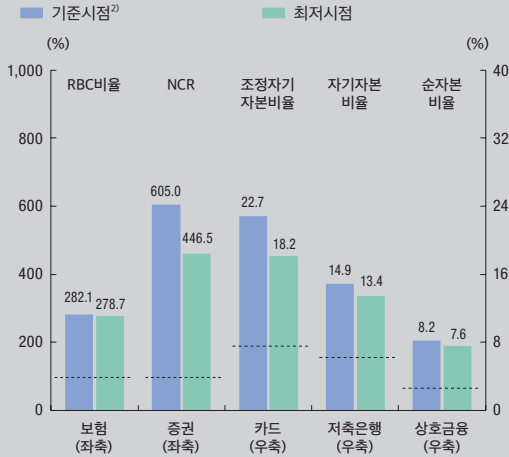
다른 업권을 살펴보면, 증권회사의 경우 자본비율이 2019년 2/4분기 605.0%에서 테스트 기간 중 최저 446.5%로(-158.5포인트) 여타 업권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다. 이는 주가하락에 따른 시장손실

4)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고점 대비 주가는 36.8% 하락, 환율은 39.2% 상승하였다.

5) 업권별 특성에 따라 이자이익(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보험료손익(보험회사), 수수료손익(증권회사 및 카드회사) 등을 나타낸다.

이 크게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 다음으로 카드회사(-4.5%포인트), 저축은행(-1.5%포인트) 등의 순으로 자본비율이 하락하였다.

### 비은행 자본적정성<sup>1)</sup>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주: 1) 규제기준은 보험 100%, 증권 100%, 카드 8%, 저축은행 7%(자산 1조원 이상 8%), 상호금융 2~5%  
2) 기준시점은 2019년 6월말

### 요인분해 결과<sup>1)</sup>

업권	기준 시점	총비용 변동	요인분해 (%)					총격후
			신용 손실	시장 손익 <sup>2)</sup>	고유 손익 <sup>3)</sup>	전염 손실	기타	
은행	15.4	-1.2	-0.4	-0.1	-0.2	-0.1	-0.4	14.2
(시중)	15.8	-1.0	-0.2	0.1	-0.2	-0.4	-0.3	14.8
(지방)	15.9	-1.3	-0.6	0.1	-0.3	-0.2	-0.3	14.6
상호금융	8.2	-0.6	-0.4	0.0	-0.1	-0.0	-0.1	7.6
저축은행	14.9	-1.5	-1.8	-0.0	0.0	-0.0	0.3	13.4
카드	22.7	-4.5	-1.3	-0.9	-2.7	-0.0	0.4	18.2
보험	282.1	-3.4	-4.3	-9.8	-9.6	-0.2	20.5	278.7
증권	605.0	-158.5	-17.4	-82.8	-32.6	-2.2	-23.6	446.5

주: 1) 굵게 표시한 수치는 자본비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  
2) 시장손익은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을 포함  
3) 고유손익은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의 경우 이자이익, 카드·증권은 수수료손익, 보험은 보험손익을 의미

6) 금번 스트레스 테스트는 보험회사 보유 자산에 대해서만 시가평가하였다. 향후 신 국제회계기준(IFRS 17)이 시행(22년 예정)될 경우 보험부채에 대해서도 시가평가가 적용될 것이다. 보유 부채에 대해서도 시가평가가 적용될 경우 보험회사의 자본비율 하락 폭은 동 결과와 상이할 수 있다.

하락요인을 부문별로 보면, 은행,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의 자본비율 하락은 대출 부도율 상승에 의한 신용손실 증가(각각 -0.4%포인트, -0.4%포인트, -1.8%포인트)에 주로 기인하였다. 보험회사(-9.6%포인트) 및 카드회사(-2.7%포인트)는 각각 보험손익 및 수수료손익 감소 등으로 자본비율이 하락하였다.<sup>6)</sup>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일부 저축은행과 증권회사는 자본적정성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충격 후에도 규제기준을 크게 상회하기 때문에 전염손실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종합평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국내 금융기관의 복원력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대외충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건전성 정책을 꾸준히 강화해 온 결과 금융시스템이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강건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이 대내외 모든 리스크를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약한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부실이 확대되면서 은행권으로 시스템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